

## 시리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과 평화적 해결의 전망

고상두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러시아가 시리아에 개입한 이유는 다양한 수준의 러시아 외교정책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내정간섭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리아 사태가 색깔혁명과 리비아처럼 미국에 의한 정권 교체의 축적사례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 지역정치적 관점에서 시리아는 중동에서 유일한 러시아 동맹국이다. 시리아는 러시아에게 해군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 무기의 주요 고객이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며 시리아의 운명이 미국에 좌우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구 소련 시기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10년간 고전했던 경험을 가진 러시아에게 시리아에서 장기간 개입할 의도는 없다. 따라서 개입 한 달 만에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푸틴계획을 발표하고 시리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다. 크림 병합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던 러시아가 국제분쟁의 핵심적인 중재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이러한 역할을 북핵 문제 해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11.30) 발표자료

## 목 차

1. 러시아 외교정책의 수준별 목표
2. 시리아 내전의 복잡성
3. 러시아 군사개입의 효과
4. 러시아 군사개입의 배경
5. 시리아 평화프로세스와 러시아의 역할
6. 이론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

## 1. 러시아 외교정책의 수준별 목표

- 국내 수준의 외교 목표: 주권민주주의의 수호
  - 러시아의 주권민주주의 개념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여부는 서구의 기준이 아닌, 그 나라의 역사문화적인 상황에 의해 결정됨. 따라서 러시아 정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에 속함
  - 구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지만, 정치혼란과 경제위기만을 경험하였음. 또한 색깔혁명으로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등의 주변국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목격 한 러시아는 서방의 내정간섭을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함. 그러므로 러시아는 자국의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서방의 충고를 거절하는 것이 외교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함<sup>1)</sup>
- 지역 수준의 외교 목표: 구 소련지역에 대한 영향력 회복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05년 국정연설에서 구 소련의 붕괴는 21세기의 지정학적 파국이며, 러시아 민족의 비극이라고 말하였음. 그러나 그가 구 소련의 복원을 원하는 것은 아님. 푸틴 대통령은 구 소련 붕괴의 원인이 과도한 제국 유지비용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 소련의 정치적 복원보다는 경제적 통합을 추구함
  - 푸틴 대통령의 CIS지역 경제통합 구상은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되었음. 관세동맹(CU), 경제공동체(EuRasEC), 공동경제공간(CES) 등의 시도를 거쳐, 2015년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출범하였음. 하지만 역내 국가들이 참여에 소극적이고,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글로벌 수준의 외교 목표: 다극적 국제질서의 수립과 국제법의 강조
  - 러시아는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주의를 포기할 것을 기대함. 푸틴 대통령은 200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유엔을 무시하고, 유럽에 MD 설치와 나토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하였음.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은 일시적인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2008년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푸틴 대통령을 KGB 출신이며 영혼이 없다고 비판하였고, 이 발언에 대해 푸틴은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머리가 없다고 응수함<sup>2)</sup>
  - 러시아는 냉전의 종식이 불평등한 안보질서를 가져왔다고 봄. 서방은 냉전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공동승리했다고 생각함. 반면, 탈냉전 안보질서 현실은 미국과 나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봄. 따라서 러시아는 다극체제의 건설을 통해 미국이 지배하는 일극체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문제의 다자적 해결을 주장함

## 2. 시리아 내전의 복잡성

### ○ 내전의 발단과 핵심 원인

- 튀니지에서 촉발된 아랍의 봄이 2011년 4월 시리아로 번지면서 내전으로 비화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임. 초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을 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은 내각 해산과 개혁을 약속하는 등 비교적 융통성 있게 대응하였지만, 별 호응을 얻지 못하였음. 2013년 8월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다마스쿠스 근교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고, 이를 빌미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려고 했으나, 러시아가 나서서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것으로 중재되었음
- 시리아 내전은 내부적 적대와 외부적 지원이 얽히고설키면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로 장기화되고 있음.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4년간의 내전으로 약 20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음.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영토의 20%밖에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전 발발 이전 30만 명 수준이던 정부군 병력은 8만 명으로 줄었음
- 시리아 전체 인구 2200만 명의 74%가 수니파이지만, 통치는 12%밖에 안 되는 알라위트(Alawites)파가 하고 있음. 알라위트는 시아파의 한 분파에 속함. 따라서 시리아 내전의 핵심 원인은 2대에 걸친 부자세습으로, 시리아를 장기집권하고 있는 아사드의 시아파 정권에 대한 수니파 다수 국민의 불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 종족과 종파로 파편화된 집단 간의 유혈경쟁으로 발전

- 시리아에는 약 1,500개의 군벌이 있음. 이들에 의해 구성된 4개의 축은 아사드 정부군, 이슬람국가(IS), 온건 반군, 쿠르드 반군임. 아사드 정부군은 시아파, 이슬람국가와 온건 반군은 수니파, 쿠르드 반군은 종족상 아랍과 다른 쿠르드 소수민족임
- 미국의 지원을 받는 온건 반군은 7개의 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유시리아군 외에 무슬림형제단, 이슬람전선, 시리아국민회의, 혁명반군민족동맹, 시리아지역의 알카에다인 알누스라, 극우적인 알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IS의 기원과 성격

- 이슬람국가인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al Sham) 또는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로 불림. 레반트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통칭하는

*시리아 내전은 내부적 적대와 외부적 지원이 얽히고설키면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로 장기화되고 있음*

**시리아 내전은  
서방과 중동의  
국가들이 개입하면서  
국제적인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중해 동부지역으로서 아랍어로 알샴(al Sham)이라고도 불림
- IS는 2003년 미국의 침공 후 이라크가 무정부상태가 되면서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로 출발한 급진 수니파 반군조직임. 이라크 인구의 다수는 시아파였지만, 과거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로서 이라크를 통치하였음. 그러므로 수니파 권력엘리트는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는 하였지만, 시아파 출신의 말리키 총리는 수니파와 권력을 나눠가지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들의 저항을 억압하고 처벌하였음. IS는 이러한 정치적 탄압을 이용하여 이라크 정부에 대항하는 수니파 급진세력으로 부상하였음
  - 미국의 소탕 작전으로 세력이 위축된 IS는 2009년에 시리아로 쫓겨났다. 그곳의 내전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세력 확장의 기회를 갖게 되었음<sup>3)</sup>
  - IS는 석유 판매와 수니파 부호들의 자금 지원으로 부자 테러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암시장에 석유를 배럴당 20~40달러의 헐값으로 판매하여 이라크에서 일일 120만 달러, 시리아에서 일일 200만 달러 등 도합 월 9,700만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음
  - 2014년 초 IS는 알카에다와 결별하고 시리아의 다른 반군들과 충돌을 빚기 시작하였음. 같은 해 6월에는 IS로 개명하면서, 그들의 점령지역에 칼리프 국가를 선포함. 이것은 현대판 오스만 터키의 출범을 의미함. 그리고 바그다디(Baghdadi)를 칼리프로 추대하면서 모든 무슬림의 절대복종을 요구함
  - IS는 2014년을 기준으로 약 5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SNS를 통해 전 세계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신병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무슬림들이 여기에 다수 동참하고 있음

○ 시리아 내전의 국제 대리전 양상

- 시리아 내전은 서방과 중동의 국가들이 개입하면서 국제적인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온건 반군을 지원하는 반면에, 러시아와 이란은 정부군을 지원함. 반면, IS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적대적으로 대함
-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국들과 함께 IS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였음. 그 이유는 IS가 온건 반군을 공격하여 반군 세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급진적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임. 이란의 숙적이자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돕고 있음.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형제국가인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들과 합세해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온건 반군에

무기와 자금도 지원하고 있음. 터키는 북시리아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동족인 투르크멘 소수민족의 보호를 위해 아사드 정부의 축출을 지지함. 그러나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리아의 쿠르드 반군에 대해서는 자국 내 쿠르드 민족과의 연대를 우려하고 있음<sup>4)</sup>

-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음. 그 이유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축출될 경우 가장 중요한 동맹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임. 중동지역에서 시아파의 지배동맹은 이란을 비롯해 이라크 정부, 시리아 정부,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민병대임. 이란은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군사고문단을 파견해 왔으며, 최근에는 수백 명의 지상군을 보냄. 그리고 시리아 서부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이들 시아파 연합세력에 중동 이외의 국가로는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음. 이란은 모스크바로 특사를 보내 러시아가 무력개입하지 않으면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러시아를 설득함<sup>5)</sup>

### 3. 러시아 군사개입의 효과

- 러시아 군사개입으로 인한 전세의 변화
  -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9월 30일을 시작으로 시리아 반군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하였음. 러시아는 공습 준비를 위해 8~9월에 걸쳐 타르투스(Tartus) 항에 수송함으로 무기와 군수물자를 실어 날랐음. 흑해함대 소속의 해병대 병력 2,000명도 배치하였음. 9월 중순에는 각종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그리고 수송기들이 카스피해를 거쳐 이란, 이라크 영공을 통과하여 시리아 서부 항구 라타키아 공군기지에 도착하였음<sup>6)</sup>
  - 시리아 공습에는 5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참가하였고, 카스피해 함대에서 26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15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하였음. 러시아는 약 2,000곳의 테러집단 시설을 폭격하였다고 발표함<sup>7)</sup>
  - 미국은 러시아가 공습한 홈스와 하마 지역은 IS 점령지역이 아니라 온건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고 비판하였음.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감행한 공습의 90% 이상이 IS 대신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온건 반군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음. 그리고 케리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 최근 파리에서 발생한 무차별 테러와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폭발한 러시아 민항기 사건 이후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여 하루 120회 이상의 출격을 하고 있으며, 핵폭탄 수송용 Tu-95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 반군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하였음.  
러시아의 개입으로  
5년째 지속되어 온  
시리아 내전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음*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를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과  
동일시하며,  
국제테러리즘과의  
전쟁을 통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시리아에 군사적  
개입을 실시함

투입하여 순항미사일을 투하하고 있음<sup>9)</sup>

- 러시아의 개입으로 5년째 지속되어 온 시리아 내전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음. 수도 다마스쿠스를 향해 진격하던 반군의 공세가 꺾였고, 시리아 정부군이 수년 만에 공세로 전환하여 알레포(Aleppo) 등과 같은 주요 도시를 탈환하는 등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 힘의 역학관계가 정부군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음

#### 4. 러시아 군사개입의 배경

##### ○ 국내정치적 배경

- 러시아의 개입 이유는 국제테러리즘과의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보호하는 데에 있음. 러시아는 체첸을 비롯해 다게스탄, 압하지야, 잉구셰티야 등 러시아 남부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준동하는 등 제2의 체첸전을 우려하고 있음. 2011년 기준 공식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1,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과 약 7,000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음
- 푸틴 대통령은 IS에 가담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무슬림이 4,000명이며, 이들이 시리아 내전에서 전쟁경험과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로 귀환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리아를 과거 색깔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처럼 미국의 지원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는 사례로 간주하고 이를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과 동일시하기 때문임. 특히 미국이 시리아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리비아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여 공습을 통해 무력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 지역정치적 배경

- 전통적으로 중동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은 약한 편임. 러시아는 1991년의 걸프전과 2003년의 이라크전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음. 그러므로 중동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동맹국인 시리아는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함께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음<sup>9)</sup>
- 시리아는 1956년 이래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러시아의 무기를 구입하여 왔음. 시리아 정부군이 보유한 무기의 50%가 러시아 산임. 그리고 러시아가 해외에 갖고 있는 유일한 해군기지인 타르투스항을 제공하고 있음. 러시아는 구 소련 시절인 1971년에 시리아로부터 이 기지를 임차해 지중해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데에 사용해 왔음
- 지중해는 미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마주하고 있는 민감한 바다임.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위치한 미6함대는 40척의 군함과 17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중해에서 멀지 않은 페르시아 만에는 미5함대가 주둔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크림에 흑해함대를 운용하고 있고,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을 지중해 작전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 러시아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를 상실하게 됨. 그러므로 러시아로서는 최소한 타르투스 항이 있는 지중해 연안 영토라도 보호하려고 함<sup>10)</sup>

○ 국제정치적 배경

- 러시아는 시리아 개입을 통해 첨단무기를 동원한 군사력 시위를 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군사개입을 견제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9월 28일 유엔 창설 70주년 총회 연설에서 군사적 개입을 통한 시리아 평화에 대한 기여를 제의하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절당하였음.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함으로써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도전하는 초강대국의 면모를 보임<sup>11)</sup>
-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여 미국의 시리아 개입을 무력화시키려고 함.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할 당시 보여줬던 과감한 행동을 재현하고 있음. 크림 사태와 달리 시리아 개입은 서방의 고립이나 제재를 받게 될 리스크가 없음
- 러시아로서는 시리아 개입이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 최초의 전면전임. 2008년에는 조지아 영토 내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러시아의 세력권에 두는 등 영향력을 넓혔음. 시리아 개입은 냉전 종식 후 최초의 구 소련 영역 밖의 파병이며, 198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26년 만의 첫 중동지역 군사개입임
-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이바노프 대통령실장은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습을 개시하였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나 시리아 정부의 요청 없이 개입하였으므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음<sup>12)</sup>

*러시아는  
시리아 개입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행동을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5. 시리아 평화프로세스와 러시아의 역할

○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

- 성공적인 시리아 개입으로 국내 지지율이 90%에 달한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의 유지를 목표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그가 IS의 제거와 난민의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으로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임<sup>13)</sup>
- 러시아가 부지런한 외교를 펼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열린

**IS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재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리아의 휴전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

-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에서 시리아의 운명은 시리아 국민에게 맡겨야 하며, 다른 외국이 강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타결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 2015년 10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을 크레믈린에서 맞이 하였음.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 공군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방문하였 음. 이것은 내전 이후 유일한 해외 방문임.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대 통령으로부터 시리아 내전의 종식을 위해 헌법 개정과 총선을 실시할 용 의가 있다는 양보를 받아내었음
  - 푸틴 대통령은 수니파의 중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을 모스크 바로 초대하여 사우디의 숙적인 이란과 러시아는 동맹관계가 아니라 고 설득하였음. 사실 러시아와 이란은 가스 수출에서 경쟁국이며, 특히 유럽이 러시아 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 는 시점에서 양국은 장래에 갈등관계가 될 수 있음
  -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2015년 10월 23일,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미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와 4자회담을 하였음. 이 회의에서 러시아는 회담 참가국의 수를 늘릴 것 을 주장하며, 이란, UAE, 이집트 등의 아랍국가들을 추가할 것을 요구 하였음. 러시아는 이들 국가들이 참가하지 못할 경우 회담에 불참하겠 다고 위협하였음. 러시아는 이란의 참여 없이는 시리아 문제의 성공적 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음<sup>14)</sup>
  - 파리 테러로 인하여 러시아와 서방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음. 푸틴 대통령은 IS 격퇴를 위해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긴급 군사작전 협력 을 하게 되었음.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양국의 국방부는 시리아 상공 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양해각서에서 서명하였음
  - 러시아는 서방이 크림 합병 이후 러시아에게 취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정은 잘 준수되고 있는 실정 임. 따라서 만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우크라 이나 휴전이 지속된다면, 서방은 적어도 내년 초에 러시아에 대한 제 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음. 물론 서방은 제재를 점진적 혹은 조건부 로 해제하려고 할 것임<sup>15)</sup>
  - IS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깡패국가에서 중재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서방에게는 IS 격퇴가 우크라이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진 이슈임. 러시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리아의 휴전 가능성이 가 시화되고 있음. 러시아는 반군들과 접촉하여 시리아 정부와 휴전을 하 고 선거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그리고 타협을 거절하는 반군 에 대해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음. 이것은 러시아가 체첸내전에서 성공을 거둔 경험모델임<sup>16)</sup>

○ 러시아의 평화모델

- 러시아는 2015년 10월 23일 개최된 발다이 포럼(Valdai International Discussion Club)에서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전쟁을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바노프 대통령실장은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평화원칙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는 통일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시리아를 종파와 종족에 따라 미니국가로 분할하게 되면 경제적인 빈곤에 빠지고 상호 적대시하게 되어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임. 둘째, 시리아의 운명은 시리아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외부의 제도가 의지가 강제되어서는 안 됨. 셋째, 휴전과 IS의 제거를 위해 약 4~6개월의 시간이 필요함. 넷째,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시리아의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함<sup>17)</sup>
- 10월 30일 빈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회의가 열렸음. 이 회담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럽연합, 중동 국가들 등 19개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미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해 시리아 내전 이후 처음으로 관련국 모두가 시리아 평화를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았음. 이 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주도로 9개항 계획이 합의됨. 1. 시리아는 통일, 독립, 세속 국가가 되어야 함. 2. 시리아의 국가기구는 유지되어야 함. 3. 종교와 종족에 상관없이 시리아 전 국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함. 4.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5. 인도적 지원은 시리아 전역에서 골고루 제공되어야 함. 6. 유엔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목된 집단은 제거되어야 함. 7. 유엔 감시하에 과도정부의 수립, 총선 실시, 헌법 개정 등을 함. 8.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9. 반 년 이내에 휴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이 회담에서는 아사드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은 그의 운명은 시리아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의 케리 장관은 그의 조속한 사임을 요구함
- 서방은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평화에 방해가 된다고 봄. 반면에 러시아는 정권 교체가 차질 국가의 붕괴와 권력의 공백을 야기하고 극단주의 테러집단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러시아는 후세인과 가다피의 몰락 이후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무정부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함. 오히려 시리아 정부군을 강화하고 국가통치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IS를 조기 격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함
-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와 달리 이란은 아사드 개인에 집착하고 있음.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회의에서 러시아의 주도로 9개항 계획이 합의되었으나, 아사드 정권의 운명에 대해서는 각국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테러집단이****국가단위로****부상하는 것은****새로운 국제정치적****현상으로,****우리나라도****관련법을 정비할****필요가 있음**

그가 이란에게 많은 이익을 약속하였기 때문임. 러시아는 시리아의 평화프로세스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소한 당분간은 아사드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6. 이론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

- 국제테러리즘의 새로운 진화 가능성
  - 지금까지 테러집단은 비국가단체로 활동하여 왔으나, IS는 영토를 가지고 있고, 석유의 생산과 판매라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테러집단이 국가단위로 부상하는 것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정치적 현상임
  - 테러집단이 국가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은 세계평화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임. 국가가 됨으로써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어느 정도 준수하는 온건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주권국가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영토와 체제에 대해 외부로부터 침범당하지 않을 불가침 권한을 누리게 될 수도 있음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IS의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
  - 최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행한 긴급 테러현안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테러 청정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지난 5년 동안 테러 위협인물로 지목된 외국인 48명이 강제 출국되었고, IS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내국인이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또한 한국은 IS가 지목한 미국의 십자군동맹 62개 국가에 포함되어 테러 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IS에 호감을 가진 사람이 파리 테러사건처럼 IS 지지 테러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새로운 국제테러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음. 따라서 국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하고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입법에 정치권이 나서야 함. 여당은 테러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고 야당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대립의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양당의 의견이 잘 반영된 초당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을 한반도에 활용
  -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서 중재자로서 성공하게 되면, 자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러한 노력은 크림 합병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게 가하고 있는 경제제재를 조기 해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진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중재자 역할을 맡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는 6자회담의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을 맡고 있어,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입장임.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별도로 열린 한러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비핵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후속작업 차원에서 양국 정부당국이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음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진전시키는 데에  
중재자 역할을  
맡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음**

주석

- 1) Robert Horvath, *Putin's Preventive Counter-Revolution: Post-Soviet Authoritarianism and the Spectre of Velvet Revolution* (London: Routledge, 2013).
- 2) Angela Stent, *The Limits of Partnership: US-Russian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3) 박찬기,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와 중동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제57호 (2014).
- 4) Don Melvin et al., “Tensions Rise as Russia Says It Deploying Anti-aircraft Missiles,” CNN, November 25, 2015.
- 5) Paul Sonne et al., “Russian President Putin, Iran’s Ayatollah Khamenei Meet to Discuss Syria,” *The Wall Street Journal*, No. 23, 2015.
- 6) Галина Дудина et al,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е—Сирии. Где кончается порядок, начинается авиация,” *Коммерсантъ*, 2015. 10. 1.
- 7) Paul Sonne et al., “Russian President Putin, Iran’s Ayatollah Khamenei Meet to Discuss Syria,” *The Wall Street Journal*, No. 23, 2015.
- 8) Owen Matthews, “Putin’s Bloody Logic in Syria,” *Newsweek*, November 24, 2015.
- 9) 안남식, “시리아 사태의 세력구도와 전망,”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제143권 (2012).
- 10) Кирилл Журенков, “Жаркая осень. С кем и за что воюет Россия в Сирии?” *Коммерсантъ*, 2015. 10. 5.
- 11) Maria Domańska, Witold Rodkiewicz, “The Russian operation in Syria: an offer or a blackmail?” *Center for Eastern Studies*, October 7, 2015.
- 12) Галина Дудина et al.,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е—Сирии. Где кончается порядок, начинается авиация,” *Коммерсантъ*, October 1, 2015.

- 13) Witold Rodkiewicz, “Russian intervention in Syria: tactical successes and the spectre of a strategic deadlock,” *Center for Eastern Studies*, October 28, 2015.
- 14) Татьяна Байкова, “МИД РФ настаивает на участии Ирана в переговорах по Сирии,” *Известия*, 2015. 10. 27.
- 15) Gideon Rachman, “A Case for Rapprochement with Russia,” *Financial Times*, November 23, 2015.
- 16) Owen Matthews, “Putin’s Bloody Logic in Syria,” *Newsweek*, November 24, 2015.
- 17) “План Путина. Россий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и действия по сирийск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путь к мировому порядку,”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October 28, 2015.

#### ❖ 저자 약력

##### ■ 고상두

현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정치학회 연구분과위원장(RC42)과 한국슬라브학회장을 역임하였음. 주요 연구분야는 지역정치와 외교안보임. 최근 학술논문으로는 “The Foreign Policy Goal of South Korea’s UN Peacekeeping Operations”(International Peacekeeping, 2015), “The Added Value of Partnership with NATO for South Korean Security”(Pacific Focus, 2014), “The Causes of Fluctuating Anti-Americanism in South Korea”(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14)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편집: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